



"아니 무너진 하늘에 작대기 받치자 한다"

뜻: 아무 문제가 없는데, 괜히 걱정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벌이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기우 · 낭비 · 허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아	니	무	너	진	하	늘	에
작	대	기	받	치	자	한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아	니	무	너	진	하	늘	에
작	대	기	받	치	자	한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오ㄴ] [모ㄴㅈ] [흥ㄴㅇ] [지ㄷㄱ] [벼ㅈㅈ] [흥ㄷ]

웹에서 보기

